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시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국제도시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고 장애인아 시아경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과 국제은행(WB)을 인천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지난 날의 인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천이 이같이 성장·변모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근래에 이룩한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날 오랜 세월에 걸쳐 인천지역사회에 쌓여 온 역사적 토양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B.C.18년 비류백제의 미추홀로부터 1883년 근대 제물포 개항을 거쳐 오늘날의 인천광역시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천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풍성한 문화유산과 그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인천이 또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 인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천 역사인물의 발굴과 유형정립의 방법론 모색>이란 주제로 인천시 역사자료관과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인천광역시장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원장

학술대회 순서

■ 개회 (14:00 ~ 14:20)

인사말씀 : 김동빈(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진한(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14:25~15:35) : 사회 - 강옥엽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 제1주제(14:25~14:45) 전근대 인천 인물의 발굴과 현황
남달우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제2주제(14:50~15:10) 근현대 인천 인물의 특징 분석
양윤모 (인하대 강사)
- 제3주제(15:15~15:35) 인천 인물 연구의 방법론 모색
이희환 (인천in 대표)

■ 휴식(15:40~15:50) : 장내 정리

■ 종합토론(16:00~17:30) : 사회 - 임학성 (인하대 사학과 교수)

- 제1주제 : 이형우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
문상범 (인천의제문화분과위원, 제물포고 교사)
유창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 제2주제 : 이영태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박철호 (내리교회 90년사 편찬위원)
이영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 제3주제 : 조우성 (시사편찬위원, 인천일보 주필)
이태희 (인천대 국문과 교수)

■ 폐회(17:30~)